

제주도 생활상 담긴 《제주도 여행일지》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의 고서들 — 7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제주도 여행일지》는 일본인 버섯재배업자들이 넉달 보름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여행일지다. 이 그림일기 덕분에 우리는 1920년대 제주도 버섯재배 사업장의 모습과 재배과정, 그리고 일본인들의 진출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다.

제주도는 본토와 풍물이 달라서,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낀 곳이다. 조선시대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와서 기행문과 기행 시집을 남겼으며, 특히 그곳으로 귀양갔던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이상적(李尙迪 1803~1865)에게 그려준 <세한도(歲寒圖)>는 불우한 스승을 위해 두번씩이나 북경에까지 다녀오면서 귀한 책들을 구해준 제자의 의리를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에 비유한 명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주도를 설명한 글은 많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도에 벼슬하러 간 사람이나 귀양간 사람들이 대부분 문인들이었고, 화가가 제주도에 갈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추사가 그린 <세한도>도 정작 제주도의 풍물을 그린 것은 아니다. 제주 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 동안 제주도 일대 고을들을 순력하면서 화공(畵工) 김남길(金南吉)에게 그 모습을 그리게 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가 유일한 화첩이지만, 제주목사의 공식적인 순행 절차를 벗어나지 않아 제주도의 다채로운 풍물이 그려지지는 못했다.

버섯 재배하는 일본인이 그림일기 남겨

일본인들은 옛부터 버섯을 좋아했는데, 일본열도와 기후나 풍토가 비슷한 제주도 땅에다 1920년대부터 버섯재배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1926년에는 제주도 버섯재배에 대한 보고서가 《수원학보》에 실렸으며, 1930년대에는 단행본으로도 여러 권 나왔다. 제주도 산간마을마다 일본인들이 몇십명씩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버섯을 재배했다.

《제주도 여행일지(濟州道旅行日誌)》 3책은 이 무렵 일본인 버섯재배업자들이 5월 10일에 일본 간다(神田)를 출발해 제주도 한라산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수확한 뒤, 9월 19일 일본 시노모세키(馬關)에 다

시 도착해 9월 27일 해산하기까지, 넉달 보름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그림과 글로 기록한 여행일지다. 부록으로 제주도 풍물 10여 가지를 그린 책이 한권 덧붙여 있다.

이 책은 5월 10일 간다의 요릿집에 모여서 버섯재배를 의논하는 그림부터 시작되는데,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도 진지하게 의논하는 모습이 보인다. 5월 14일 오후 10시 신바시(新橋)를 출발해 17일에는 히로시마(廣島) 나가시오(長沼) 여관에 짐을 풀고 다시 사업을 구상했으며, 18일에 신사를 참배했다. 오후 9시 시노모세키 정거장에서 현해탄을 건너는 부산연락선 승강장 찾집에 짐을 풀고 차를 마셨다. 그림1에 찾집 풍속과 일본인들의 옷차림이 잘 나타나 있다.

주인공은 부산에 내린 뒤에도 지계꾼들이 늘어선 부산 잔교, 초량 정거장 부근, 마산포, 진도, 목포항, 추자도, 제주항까지의 여정을 차례로 그렸다. 제주도에 내린 뒤에도 용두암, 한라산, 삼성혈 등의 경치를 세밀하게 그렸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이들은 6월 2일부터 버섯재배 사업에 착수했다. 제주성 안에서 사업지를 향해 떠난 이들은 7일부터 버섯 종자를 배양하기 시작했는데, 물갈이를 한 닻인지 한 사람이 배양이를 해 침과 뜸으로 응급처치했다. 잔등에다 뜸 뜨는 모습을 자연과학자가 관찰하는 눈으로 그리기도 했다.

한라산 산신제의 흥겨운 풍경 그려

이들은 한라산에 입산하기 전에 산신제(山神祭)부터 지냈다. 6월 14일에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산신제를 흥겹게 지냈는데, 그림2에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잔치는 한라산 산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조선인 인부들에게 술과 고기를 먹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으며,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차리기 위한 기회기도 했다. 조선인 인부 집에서 인부들이 중심이 돼 잔치를 준비했는데, 일본식으로 열댓명을 초대했지만 시간이 되자 초대받지 않은 마을 사람들 까지도 몰려들어 흥겹게 먹고 마시며 놀았다. 그림 위의 기록에 따르면 소주 40잔, 술값 400문, 닭 세 마리, 닭값 70문, 달걀 20개, 달걀값 40문 등이 기록돼 있다. 팔을 걷어부치고 닭을 잡거나 물을 길어오고 양념을 뺀 한편, 지계에 소주를 받아오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한

쪽에는 시간도 되기 전에 긴 담뱃대를 물고서 한가하게 잔칫집을 찾아오는 동네 노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한라산 신에게 입산(入山)을 아뢰며 산신제를 잠시 지낸 뒤에 흥겹게 먹고 마시기 시작했는데, 주인공은 조선인들이 술 취해 노는 모습을 흥미로운 눈으로 관찰했다. 일어나서 민요를 부르는 노인, "얼씨구 좋다!" 춤을 추는 노인, 취해서 땅바닥에 엎어진 노인, 혀 꼬부라진 입으로 술을 더 청하는 노인 등등, 이 일본인은 초대받지 못한 조선인들의 취태(醉態)를 재미있게 그렸다. 계산 빠른 일본인은 속없는 조선인들이 부러먹기도 좋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16일에는 조선 음식인 떡을 해먹은 뒤에 버섯 종자를 뿌리고, 불 위에서 건조하기도 했다. 다음날부터는 한라산에 들어가 원시림의 나무를 찍고 길을 만들며, 절벽이나 낭떠러지에는 외나무다리를 만들어 건넜다. 산속에 초가집으로 작업장을 세군데 만들어 일본인 사업자들과 조선인 인부들이 나누어 머물렀는데, 이들은 제주도 오지에서도 일본식 목욕문화를 즐기기 위해 간이 목욕탕을 만들었다. 별거벗고 목욕하는 그림을 보면, 당시 제주도 주민들이 이들의 이국적인 생활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엿보았을 듯하다.

“1920년대 제주도의 생활상이 담긴 이 그림일기는 민속자료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단원 김홍도나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 못지 않은 미술자료로도 즐길 수 있다. 한장에 여러 사람을 그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과 옷차림이 다르며,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르다.”

버섯 재배는 두 달 뒤에 무사히 끝났다. 9월 11일 빗속에 한라산에 올라, 날이 개자 버섯을 수확했다. 13일에는 정들었던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제주성을 떠났고, 17일에는 목포에서, 18일에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19일 시노모세키에 도착한 일행은 온천에서 여독을 풀 뒤에, 27일에 각자 몫을 나눠 갖고 해산했다. 넉 달 보름 동안의 사업 일정을 거의 날마다 그림으로 그려 남겼다. 설명이 필요한 날만 간단히 일본어로 일기를 썼다.

제주도 풍물 그림도 부록으로 남겨

그림일기 3권 뒤에는 부록도 한권 덧붙여 있는데, <부록(附錄)>이라는 제목 말고는 다른 설명이 없지만 제주도 풍물을 그린 것임을 곧 알 수 있다. 이 부록은 농가 부녀자, 연자땃돌 돌리기, 쌀 까부르기, 민요를 부르며 보리 쪄기, 농기구, 어기구, 보리 타작, 보리 썰기, 보리 베



그림1. 당시 찻집 풍속과 일본인들의 옷차림을 보여주는 그림.

그림2. 한라산에 입산하기 전에 산신제를 준비하는 모습.

기, 밭 갈기, 씨 뿌리기, 김매기, 두엄 뿌리기, 풍년 잔치 등의 순서로 그림이 계속된다. 역시 일기를 그린 사람이 같은 필치로 그렸는데, 그림일기의 그림 솜씨가 자못 우스꽝스럽다면 풍물지의 그림 솜씨는 치밀하다.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 네권의 그림일기 덕분에, 우리는 1920년대 제주도 버섯재배 사업장의 모습과 재배과정, 그리고 일본인들의 진출상황 등을 소상하게 알 수 있다. 이 그림일기는 1920년대 제주도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민속자료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단원 김홍도나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 못지 않은 미술자료로도 즐길 수 있다. 한장에 여러 사람을 그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과 옷차림이 다르며, 바라보는 시각도 또한 다르다. 산신제를 지낸 뒤에 술주정하는 제주도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은근히 웃음이 나오다가도, 조선 땅을 착취하러 진출한 일본인들 앞에서 속도없이 취태를 보이는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다.

이 그림일기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데, 이들이 일본에서 떠난 지방과 음식점, 찻집까지도 낱낱이 씌어 있으며, 동업자들의 이름도 소상하게 적혀 있다. 이런 자료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면, 어느 지방의 누가 언제 이 그림일기를 그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